3 유교의 전통과 생활

조선 시대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3년 동안 부모의 무덤을 지키며 효를 실천했어요.

효는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예절 중 하나예요.

또 나라에 충성하고, 남녀 간에 도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지요.

이렇듯 유교는 조선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었고,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조선 시대 사람들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EBS

1 조선이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은 까닭은?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숭상하다

신진 사대부가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은 고려 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어요. 그중 하나가 불교를 멀리하는 것이었어요. 고려 말의 불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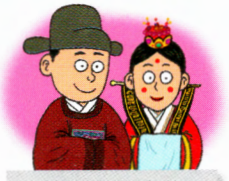
조선이 건국되자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들은 불교를 대신할 수 있는 사상으로 유교를 선택했어요. 유교는 중국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사상이에요.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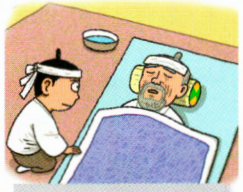
조선 시대 가장 널리 유행한 유교 사상이 성리학이죠. 성리학은 고려 말에 전래된 유교의 한 갈래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었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 되었답니다.

성리학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유교의 한 갈래로 우주의 원리와 사람의 본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조선의 기본 법전, 《경국대전》

땅과 집을 사면 관청에 보고해야 함


혼인할 나이를 정해 놓음


부모가 많이 아프면 병역 면제를 받음

노비 여성의 출산 휴가는 90일임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이죠.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규범을 담은 법전을 만들었어요. 바로 《경국대전》이에요.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성종 때 완성되었어요. 왕의 이름이 '이룰 성' 자를 쓴 '성종'임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시기에 통치 제도와 법 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답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뿐만 아니라 토지나 집을 사고파는 문제, 혼인할 나이, 노비의 출산 휴가 등 일반 백성들의 생활과 관계있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경국대전》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답니다.

호기심 뿜뿜

왜 조선은 유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신진 사대부들이 유학의 한 갈래인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조선을 건국하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특히 고려 말에 불교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조선은 불교를 억압하였어요.

2 유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했나?

유교 예법에 따라 치러진 집안 행사, 관혼상제

"오늘은 할머니 제삿날이다. 저녁에 큰집에 가자꾸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삿날은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제기를 닦는 등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쁘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런 전통을 갖게 된 것일까요? 바로 조선 시대에 강조된 유교 전통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죠.

조선에서는 왕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유교의 예법에 따라 집안 행사를 치렀어요. 이것을 '관혼상제'라고 해요.

관혼상제
관은 관례, 혼은 혼례, 상은 상례, 제는 제례를 말함

'관례'는 성년이 되는 의식이에요.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라고 했어요. 조선 시대 아이들은 몇 살쯤 성년으로 인정받았을까요? 15세랍니다. 관례를 치르면 가장 달라지는 것은 머리 모양이에요. 남자는 상투를 틀고 관을 썼고, 여자는 머리에 비녀를 꽂았답니다.

관
검은 머리카락이나 말총으로 엮어 만든 쓰개

'혼례'는 혼인을 하는 것이에요. 조선 시대 혼례는 지금과 다른 점이 있어요. 신부 집에서 치러졌거든요. 혼례 날짜도 신부 집에서 정했지요. 혼례를 치른 후에는 신랑 집으로 가서 시댁 어른들께 폐백을 드렸답니다.

폐백
신부가 신랑의 집안 어른들께 첫 인사를 드리는 것

'상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돌려보내는 의식이에요. 사람은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고 여겼거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부모님의 무덤을 지키며 효를 실천했어요.

'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조선 시대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효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와 조상이 돌아가신 날과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제사를 지냈어요.

관례(어른이 되는 의식)

혼례(혼인을 치르는 의식)

상례(죽은 이를 장례지내는 의식)

제례(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

유교 윤리 실천 지침서 《삼강행실도》

세종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흐른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어요.

《삼강행실도》: 유교 윤리를 실천하는 모습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생긴 것은 나의 덕이 부족하기 때문이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전하, 백성들이 유교의 기본 윤리인 효를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책을 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종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효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을 펴내도록 했어요. 이에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충신과 열녀, 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을 펴냈어요. 이것이 《삼강행실도》예요.

《삼강행실도》는 그림까지 곁들여져 글을 잘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덕분에 백성들은 유교 윤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지요.

? 호기심 뿜뿜

삼강행실도라는 책에 그림이 그려진 이유가 있어요?

신진 사대부들이 유교를 바탕으로 조선을 건국했지만, 대부분의 백성에게는 아직 유교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에 세종 대왕은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생각을 심어 주기 위해 유교에서 강조하는 윤리를 소개할 수 있는 이야기책을 펴내면서 그림까지 곁들여서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열녀 절개를 지킨 여자

스토리 플러스 삼강오륜이 뭐예요?

오륜

삼강오륜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삼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이라고요? 땡!

삼강과 오륜은 모두 유교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덕목이에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삼강은 '신하는 임금을, 아내는 남편을,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에 비해 오륜은 아버지와 아들, 임금과 신하, 남편과 부인, 어른과 아이, 친구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덕목을 말해요.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3 조선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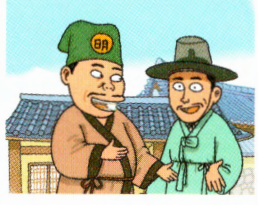
사극에서 나이 많은 노비가 어린 도련님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본 적 있지요?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당연한 모습이었죠. 바로 신분 때문이었어요. 조선 시대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졌어요. 부모의 신분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번 정해진 신분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법으로 정해진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민' 두 가지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뉘었고, 천민까지 포함되면 네 개의 신분이 있었지요.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었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랐어요.

제일 높은 신분은 양반이에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관직에 나가는 것이었죠. 관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이를 위해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들은 땅과 노비를 가지고 있었기에 생활이 비교적 넉넉했죠.

중인은 양반과 상민의 중간에 해당되는 신분이에요. 병을 고치는 의관, 법률을 다루는 사람, 통역을 하는 통역관, 양반을 도와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 등이 중인에 속했어요. 오늘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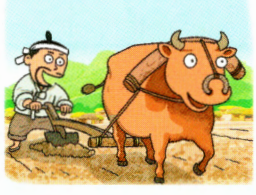
글공부하는 선비(양반)



통역을 하는 통역관(중인)

상민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대체로 농업, 상업, 수공업, 어업을 하며 살았어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농민이었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상민 중 농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나라에 세금을 냈고,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켰거든요.

천민은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았어요.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였어요. 주인은 노비를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고팔기도 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답니다. 이 밖에도 천민에는 무당, 백정, 기생, 광대 등이 있는데, 모두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상민)

굿을 하는 무당(천민)

백정
소나 말을 잡는 사람들

광대
줄타기 등 묘기를 부리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호기심 뿜뿜

조선 시대의 신분은 모두 몇 개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조선에는 두 개의 신분만 있었어요. 양인과 천민이었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양인이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었고, 천민이 있었으니 모두 4개의 신분이었답니다. 과거 시험은 당시 신분을 높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었는데, 법적으로는 양인이라면 누구나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분에 따라 사는 집이 달랐다

"신분이 다른데, 감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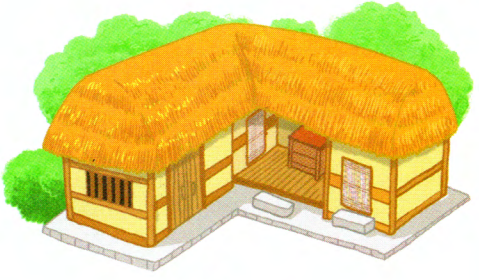
아마도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었으니까요. 신분이 다른 양반과 상민들은 사는 집의 모습이 달랐어요. 비록 그들은 한마을에 모여 살았지만 집도 신분에 맞게 지어야 했으니까요.

양반의 기와집

양반은 기와집에 살았어요. 집의 크기는 같은 양반이라도 어떤 관직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랐어요. 하지만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두고, 남자가 생활하는 사랑채와 여자가 생활하는 안채로 공간을 구분하였답니다.

위패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

상민은 초가집에 살았어요. 초가집은 농사를 지은 뒤 생기는 볏짚으로 지붕을 덮어서 만들었어요. 집의 크기가 작아서 남자와 여자가 생활하는 공간도 나누지 않았답니다. 또 나무나 돌로 울타리를 쳤어요.



상민의 초가집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신분에 따라 먹는 음식도 차이가 있었어요. 양반은 쌀밥에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민은 잡곡밥을 먹고 반찬 수도 많지 않았죠.

혹시 12첩 반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임금님만 드시는 상차림을 말해요. 그럼 양반의 상차림은 어땠을까요? 5첩, 7첩 반상을 차려 먹거나, 최대로 9첩 반상까지 차릴 수 있었대요.

이에 비해 상민의 상차림은 아무리 부자라도 3첩을 넘지 못했대요. '첩'이란 밥과 국, 김치를 제외한 반찬의 가짓수를 말해요.

또한 명절이나 절기마다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이를 '세시 음식'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세시 음식으로는 추석에 먹는 송편, 동짓날에 먹는 팥죽 등이 있어요.

양반의 상차림
양반은 경제력에 따라 5첩에서 9첩 반상을 차려 먹었음

상민의 상차림
주로 잡곡밥을 먹었으며 반찬의 가짓수도 3개를 넘지 못했음